

조계사 도심포교 100년 미래 전망

2~10일 사진전·음악회·생활실천운동 '꽃이 되어요' 선포식

서울 조계사(주지대행 토진)가 창건 100주년을 맞아 도심포교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법회와 전시회 등의 행사를 연다.

2~10일에는 도심포교 100년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사진전과 사보(寺報)전을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5~7일 낮 12시 30분에는 시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8일에는 인연 맺기 신도원적봉안 불사, 10일에는 도심포교 100년 기념식과 함께 생활실천운동 '꽃이 되어요' 선포식을 개최한다. 생활실천 운동은 행복을 나누고(布施), 다정하게 말하며(愛語), 남을 돕고(利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자(同事)는 뜻으로 사십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운동이다.

조계사는 또 24일까지 '이루어지는 조계사'를 슬로건으로 '2010년 부처님오신날과 조계사', '기도하는 조계사', '향기가 있는 조계사' 등 조계사와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상을 공모한다.

조계사는 조계종총무원 직할사찰로 한국불교의 중심지다. 33개에 이르는 신행단체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0만 신도를 자랑하는 조계사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포교 1번지 조계사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을 장엄한 모습(위). 불교 1번지 조계사 경내는 가건물과 주차장 등이 어수선하게 자리잡고 있다.

찾는 사찰 중에 한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만 해도 일일 500여 명이 들러 한국의 불교와 불교문화를 접하고 있다.

'불교 1번지' 이름 무색한 외형

하지만 조계사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외형으로 그 위엄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사 주변의

불교용품점과 일주문 옆 신도회관은 어둡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다. 경내 곳곳의 신도회 사무처와 접수처 등으로 쓰이는 가건물과 천막, 주차장은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2009년에 세운 8각10층석탑과 사적비는 전체 공간에 비해 커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조계사 측은 석탑 건립을 시작으로

사찰 주변 경관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내에 10·27법년 역사교육관 건립을 추진과 맞물려 주변 정비는 더 늦춰지고 있다.

신도들은 조계사 경내와 주변을 공원화해 인사동과 경복궁을 잇는 한국 전통 문화벨트로 꾸며 도심 속 사찰의 정취를 살리겠다는 원력 불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창건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우뚝 서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다.

이상연 기자



월정사서 新 문예운동 꿈틀

15일 '새로운 문예운동과 시음송한마당'

평창 월정사에서 새 문예운동이 시작된다.

평창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5일 '제1회 새로운 문예운동과 시음송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근대세계와 문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여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대안 있는 삶에 대한 전망과 생명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행사는 제1부 '문명의 위기와 새로운 문화운동, 그리고 한국시가의 현대화 가능성'을 주제로 10시 경 내 동별당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와 오후 6시 50분 경내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제2부 '비단 깔린 장바

다에 울려 퍼지는 소리의 꽃 향송이' 주제의 시음송회로 구성된다.

학술세미나에는 홍용희 경희사이버대 교수('문명 전환기, 새로운 문예운동과 입교출신'), 이성희 시인('동아시아와 예술문화와 흰 그늘의 길'), 이도훈 한양대 국문과 교수('한국시가의 음악성과 그 현대화 가능성'), 임동화 한신대 교수('왜 낭송이 아니고 음송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한다.

제2부 시 음송회에서는 이애주 서울대 교수와 홍성담 화백이 '생명과 평화를 위한 춤'을 통해 '영가무도'와 함께 즉흥적 그림 그리기 등을 선보인다.

조동섭 기자

강제 종교교육 이제 그만!!!

KCRP '학생인권조례' 김상곤 교육감 초청강연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종교사립 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에 실질적인 제동이 걸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9월 28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주최로 열린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의미와 종교인권' 초청강연회에서 이번 조례 공포의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과를 설명한 뒤 '체벌금지'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종교의 자유 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이 살아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고 그러한 교

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종교사학이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했다든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을 80% 이상 받기 때문에 공교육이라는 기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며 "향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규칙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김 교육감에 이어 류상태 목사가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류 목사는 '학교종교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보조강연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종교

를 우선 고려 △특정 종교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 △학생들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 △객관적인 종교교육 시행을 교육현장에서 확대 종교자유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그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개별 중립학교들이 교사 채용 등에도 종교편향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시정공고를 내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현지사 소개 그 네번째 이야기 불신관(삼신론) ②

부처님은 마음 안도 아니고, 마음 밖도 아닌,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에 32상 무량 억종광 빛의 몸으로 여여(如如)히 계신다



영산불교 대적광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 불과(佛果)를 이루면 삼신(三身)을 지닌다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붓다만이 알고 있는 가장 깊은 영역에 대한 중요한 법설입니다. 불과를 이루는 것은 삼신(三身)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 삼신을 알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 수준이 완성에 이르렀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실로 삼신은 불교 교학과 수행지침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신론(二身論, 법신·생신)적 불신관은 적멸계(불보살)를 보지 못한 까닭

〈아함경〉에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하여, 법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들을 근거로 육신을 지닌 석가모니부처님과 법자체로서의 법신개념으로 구별하는 이른바 이신론이 부파불교를 거쳐 초기대승불교(유승의 대지도론, 중론 판어래품 등)에 수용됩니다. 그러나 생신(生身)은 영원한 몸이 아니고 법신은 영원하지만 우주 그 자체로서 인격이 없어, 그 어느 것도 불신의 완전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닌 법신으로는 중생구제를 위한 우주적 구원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극락정토에 계신 아미타부처님처럼 영원한 생명과 인격을 지닌 신존재는 화신도 법신도 아니기에 정토삼부경 같은 대승경전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 삼신론에 대한 경전상 근거

〈금광명회수왕경〉의 〈분별삼신품〉은 법신, 응신, 화신을 설명합니다. 불멸 후 1천년경 대승 무착의 〈삼대승론〉과 세진의 〈대승장엄경론〉에서도 각기 명칭만 다를 뿐 붓다의 세 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보신불을 친견하지 못하면 우주적 진리의 위대한 불교를 알 수 없다.

경전은 삼신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논서는 이러한 경전을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삼신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대적광명에서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억종무량광과 부처님의 보신을 보고, 안으로 육종진동을 체험하여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삼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산불교에서는 직접 대적광명에 들어 친견한 부처님의 모습을 알리고 부처님의 법설을 그대로 전하고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미증유한 핵심교설과 부처님의 삼신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親身佛>

현상계의 두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미묘한 음성,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영원불멸의 몸체, 원력과 자비, 지혜와 복덕, 향하의 신통과 위신력이 구축되어 인격과 형태를 지니며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보신불(報身佛)이 있습니다. 보신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며 32상80종의 무량억종광의 빛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불신입니다. 진불인 법신에 의지하지만 영원한 지복의 몸입니다. 보신의 지혜와 의지로 수천 수억의 화신을 나누어 중생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계의 모든 부처님들은 보신불로 계십니다.

◆ 부처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지를 오도하는 대 망어!

부처님이 안계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성의 개념만으로 부처님을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 모습은 32상80종호 이상으로 아름답고, 너무도 자비로우며, 지혜는 끝없이 깊고, 그 위신력에 불가능이 없어 불자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수행이 되지 않아 보신의 부처님은 물론이고 화신부처님조차 친견할 수 없는 현재의 불교계에 이 진실을 아는 부처님 제자로서 간곡히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이 안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정법을 훼손하고 부처님을 능멸하는 대망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16세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한글·영·판·알·판·판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부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열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이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삼매 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는 우리 자신의 비밀, 겉껍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계 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 관음대교, 관음대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관음보살님께서는 헌신하시어 직접 부촉하신 관음대교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인간 실체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한평생을 좌우하는 데야와 영유아 시기의 교육 방법과, 평안한 사후를 위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 최천무후 (238면 | 15,000원)

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자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인 최천무후! 그녀가 불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되짚어 불교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질타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제는, 부부 각각의 친·외가족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유훈대 무주요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은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요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제입니다.